

판소리의 대중화를 통한 힐링과 복지

최동현(군산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판소리와 지역사회복지 |
| 2. 음악의 기능과 치료 | 6. 전주시평생학습센터의 “전주시민 한 소리 하기” |
| 3. 전통음악과 판소리를 통한 음악 치료의 가능성 | 7. 판소리를 통한 힐링과 복지를 위하여 |
| 4. 판소리를 통한 노인의 자아 통합 | |

1. 머리말

최근 들어 힐링(healing)과 복지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다. 힐링이란 몸과 마음의 ‘치유’를 가리키고, 복지란 ‘행복한 삶’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들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친 데나 아픈 데를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처는 늘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치유함으로써 행복한 삶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가리킬 때의 복지(welfare)는 “사람들의 안녕(well-being)을 추구하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노력”¹⁾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복지는 힐

* 이 논문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한국민속

링과 함께 늘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된다.

복지에는 주체와 객체가 있다. 곧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와 복지를 받는 객체가 존재한다. 복지에서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집단)이다. 객체는 나이에 따라, 계층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의 범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은 한국민속학자대회를 위하여 집필되었다. 이 논문의 제목이 다소 어색하고 낯선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판소리, 넓게 말해서 민속학이 침체를 맞고 있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탐구하여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민속학의 부흥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져본다.

이 논문에서는 민속 중에서도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 특별히 판소리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필자가 오래 동안 판소리를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판소리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판소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온 경험이 있어, 이를 소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2. 음악의 기능과 치료

판소리를 심리적인 상처의 치유나 복지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판소리가 지닌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나온다. 판소리는 음악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음악의 기능을 통해 판소리가 지닌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찍부터 음악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인류사의 초기부터 광범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수많은 문화권에서 음악은 특별한 치료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²⁾ 음악의 치료적 기능을 현실 속에서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현대에 와서 음악치료학이라는 학문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음악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반응 등 여러 반응을 일으킨다.³⁾ 따라서 이

학자대회 2014'에서 기획주제로 발표된 것임.

1) 이효선,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학지사, 2013, 15면.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현주, 『인간행동과 음악』, 학지사, 2011, 83-85면 참조.

3)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최병철, 『음악치료학』, 학지사, 2013, 71-111면 참조.

러한 반응을 적절히 활용하면 음악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음악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했다. 음악인 류학자인 메리엄(Allan P. Merriam)은 “모든 사회에 한결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론”⁴⁾으로서 음악의 기능을 열 가지로 제시한 바 있으며, 캐플란(M. Kaplan)은 여덟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⁵⁾ 이러한 음악의 다양한 기능은 기능 별로 구별되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된다. 예컨대 어떤 음악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치료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음악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음악치료 학이다. 음악치료란 “음악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역동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목표된(목표로 삼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재(intervention)의 체계적인 과정”⁶⁾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음악치료는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치료 행위이다. 음악치료학은 세계 1,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가진 군인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가 행해지면서 학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⁷⁾ 그러니까 음악치료학은 20세기 중반이 되어야 비로소 학문으로 자신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숙명여자대학교에 음악치료대학원이 석사 과정으로 개설된 것이 시초였으며, 음악치료에 관한 논문은 2000년에 세 편이 발표된 것이 처음이라고 하니,⁸⁾ 우리나라의 음악치료학은 이제 막 걸음을 떼

4) A. P. 메리엄, 이기우 옮김, 『민족음악학』, 신아, 1990, 291면.

5) 메리엄이 든 음악의 열 가지 기능은, ① 정서표현의 기능, ② 심미적 향수의 기능, ③ 오락의 기능, ④ 의사전달(communication)의 기능, ⑤ 상징적 표상의 기능, ⑥ 육체적 반응을 일으키는 기능, ⑦ 사회 규범에의 적합을 강화하는 기능, ⑧ 사회제도와 종교의례를 성립시키는 기능, ⑨ 문화의 존속과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능, ⑩ 사회의 통일에 공헌하는 기능이다.(A. P. 메리엄, 이기우 옮김, 앞의 책, 291-300면.) 캐플란이 든 여덟 가지는 ① 지식의 형태로서의 음악, ② 소장품으로서의 음악, ③ 개인의 경험으로서의 음악, ④ 치료로서의 음악, ⑤도덕과 상징성으로서의 음악, ⑥ 상품으로서의 음악, ⑦ 사회의 변화를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음악, ⑧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나리오를 연결하는 음악이다.(최병철, 앞의 책, 95-97면.)

6) 정현주, 앞의 책, 25면.

7) 정현주, 『음악치료의 이해와 적용』,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17면.

8) 김영신·고명환·박지은, 「국내 음악 치료 사례연구 동향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제13권 제3호, 2011, 24면.

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음악이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된 데는 음악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정현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⁹⁾ 첫째, 음악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선천적으로 음악에 반응하는 내재된 본능을 가진 아동을 ‘음악아(音樂兒)’라고 하는데, 음악치료의 목적 중 하나는 장애에 상관없이, 내재된 ‘음악아’를 일깨워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고 음악적 경험 내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한다. 둘째, 음악적 환경에서 보인 행동은 음악외적 환경에 전이된다.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음악 활동을 할 때 생긴 효과를 음악 활동을 하지 않는 때에도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음악적 환경에서 보인 행동이 음악 외적인 환경에 전이되어 지속된다는 전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셋째, 음악에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다루는 힘이 있다. 이 말은 음악이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음악이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음악적 활동에는 인간의 모든 측면이 관련된다. 음악은 총체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인지, 신체 운동, 언어, 사회, 정서, 생리 화학적 측면이 모두 관련된다. 이렇듯 여러 측면이 총체적으로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악적 환경은 아동 발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음악적 작업은 내재된 동기를 바탕으로 한 인식의 연속성을 유도한다. 음악은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지속되는 시간 위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자극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점들을 대전제로 하면서 음악을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정현주는 음악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¹⁰⁾ 첫째, 충분한 훈련 과정을 수료한 치료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변화가 요구되는 대상이 필요하다. 음악치료적 관점에서 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능’에 초점을 둔다. 음악치료는 음악적인 증재를 통해 인지 기능, 운동 기능, 의사소통 기능, 정서 기능 그리고 사회 기능이 강화된다는 전제로 접근되며, 이러한 기능의 변화들이 궁

9) 정현주, 앞의 책 28-36면 참조.

10) 정현주, 앞의 책, 25-27면 참조.

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음악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한다. 셋째, 음악치료는 음악적 진단과 다른 전문적인 진단을 검토하여 설정된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치료 단계를 설정하여 제공되는 하나의 중재과정(intervention process)이다. 넷째, 어떠한 음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는 대상자의 음악적 선호도와 배경, 성향 그리고 문화가 포함된다. 이렇듯 음악치료는 매우 전문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이 관련된 복합적 활동이다.

음악 치료의 대상은 광범위하다. 최병철이 소개하고 있는 음악치료의 대상은 정신질환자, 노인질환자, 정신지체인, 자폐아, 신체장애인, 감각기관 장애인, 학습 장애인, 일반의료 대상자 등인데, 이 일반의료 대상자에는 종말기 환자, 수술과 마취, 출산과 신생아, 예방의학이 포함된다.¹¹⁾ 이렇게 보면 음악치료의 대상은 의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그렇다고 해서 음악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은 아니다. 여러 분야에서 음악치료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어서 갈수록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치료는 요즘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힐링’과 어떻게 다른가? 힐링 또한 말뜻만을 본다면 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가 보통 담화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보다 덜 전문적인 행위를 가리킨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음악‘치료’는 보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위이고, 음악을 통한 ‘힐링’은 이보다는 덜 전문적이며, 덜 체계적이고, 일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

3. 전통음악과 판소리를 통한 음악 치료의 가능성

앞에서 음악 치료란 “음악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역동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목표된(목표로 삼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재의 체계적인 과정”이라는 정의를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 음악은

11) 최병철, 앞의 책 187-360면 참조.

음악 경험을 뜻하는데, 음악 경험의 종류에는 “즉흥, 재창조(또는 연주), 작곡, 감상의 네 가지”가 있다고 한다.¹²⁾ 즉흥은 “악곡 또는 그 일부분을 악보에 의하지 않고, 연주자가 자발적으로 즉석에서 연주하는 것”¹³⁾이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음악 경험의 형태는 음악 재창조(연주)와 감상이다. 연주는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음악을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연주에는 기악 연주뿐만 아니라, 성악 연주 곧 노래 부르기도 포함된다. 연주를 재창조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만들어진 악보를 보고 다시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연주일기 때문이다.

음악 치료에서 즉흥과 작곡은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물론 치료적 목적의 즉흥과 작곡은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가능하긴 하다. 음악 치료에서의 즉흥과 작곡은 예술적인 작품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된다. 즉흥과 작곡의 과정을 이끌어가고, 결과를 해석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음악 경험 형태는 노래부르기와 감상이다. 악기 연주와 감상도 포함되지만, 판소리는 악기 연주가 불가능한 음악이므로 노래부르기와 감상만을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겠다.

정현주는 노래 심리 치료의 활용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이 방법은 판소리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① 노래 대화하기 : 준비된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치료사 또는 집단 구성원과 함께 나누는 방법.
- ② 노래 부르기 : 목소리를 통하여 음색, 선율, 가사 등을 직접 표현하는 방법
- ③ 노래 회상하기 : 노래를 이용하여 과거를 회상하는 방법
- ④ 노래 즉흥 연주 : 즉흥적으로 노래를 만들어 연주하는 방법
- ⑤ 노래 그림 그리기 : 노래를 듣고 연상되는 장면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 ⑥ 노래 만들기 : 기존의 곡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가사를 바꾸거나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방법¹⁴⁾

12) 최병철, 앞의 책, 138면.

13) 파플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즉흥연주」, <http://terms.naver.com>

14) 정현주, 앞의 책, 255면.

이상의 예를 보면 보통 사람을 상대로 해서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예컨대 ‘노래 대화하기’는 준비된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함께 나누는 것이므로 판소리에 관한 지식이나 학습 경험이 없는 사람도 즉시 할 수 있다. ‘노래 회상하기’는 노래를 이용하여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므로 역시 아무나 바로 할 수 있다. ‘노래 그림 그리기’도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래 부르기’나 ‘노래 즉흥 연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판소리는 배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판소리에서 사용하는 발성법과 음색이 일반적인 민요나 서양음악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소리 부르기는 아무나 할 수 없다. 배워야만 부르기가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음악의 모든 것을 체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즉흥 연주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판소리를 잘 알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러한 음악심리치료의 기능은 무엇인가? 정현주는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를 기능으로 들고 있다.

- ① 문제의 규명 : 노래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문제와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감정어입 : 노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감정을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다.
- ③ 투사 : 노래의 가사에서 다루어진 문제점이나 감정과 동일시한다.
- ④ 자기 정화 : 특정 이슈에 대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 ⑤ 설득 : 가사를 통해 현재 대면하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해결 방법을 얻는다.
- ⑥ 보편화 : 가사를 통해 본인의 문제가 타인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 ⑦ 외면화 : 무의식적으로 노래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감정적인 반응과 함께 내재된 갈등이나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⑧ 자기 표현 : 본인의 문제를 노래를 통해 전달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¹⁵⁾

이러한 이론적인 바탕은 모두 서양음악을 통해 축적된 성과이다. 이런 성

15) 정현주, 같은 책, 256면.

과가 한국음악, 좁게는 판소리를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인지는 실제 치료 경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음악 상황은 좀 독특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서양음악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 우리 전통음악이 있지만 개화와 함께 주변으로 밀려난 전통음악은 음악 교육에서도 주변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음악, 그리고 그중에서도 판소리는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서양음악과 같은 효과 또는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의 전통음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아직 이를 입증할만한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가운데, 국악을 듣고 태어난 신생아들이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신생아들보다 정서가 안정되고 자율신경계의 밸런스가 잘 맞는 이른바 ‘음악태교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¹⁶⁾는 전통음악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통음악은 정악이다. 정악은 선율의 변화가 심하지 않고, 느리며 조용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음악은 정악처럼 조용한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판소리와 같은 음악 속에는 격렬한 정서의 표현이 자주 자주 등장하므로 위의 결론을 전통음악 전체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한국 전통음악을 이용한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의 메타 분석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¹⁷⁾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전체 효과는 많은 정도의 영향이 있다. ② 전통음악을 적용한 치료적 효과가 다른 음악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③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장애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령별에서는 성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보다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큰 효과를 보여주었다. ④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한 경우가 음악 활동만을 한 경우보다 효과가 컸다. ⑤ 전통음악에서는 장단을 활용한 활동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며, 민요를 활용한 활동이 가장 작은 효과를 보였다. ⑥ 종속변인에 따라서는 사

16) 이인수, 「한국전통음악을 통한 건강증진과 치료 효과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제23권 2호, 2007, 329면 참조.

17) 이 연구에서는 2013년까지 발표된 논문 131편 중 기술연구, 논문과 학술지가 중복되는 연구 등을 제외한 73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박소영·황은영, 「한국 전통음악을 활용한 국내 연구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제15권 2호, 2013, 51-71면 참조.

회성 변인과 행동변인을 위한 효과가 가장 컸다. 박소영과 황은영의 연구를 통해서 전통음악을 음악치료에 활용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거의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그 동안 제출된 모든 논문을 분석한 것이므로 신뢰할 만하다. 따라서 전통음악을 치료의 중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고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민요를 활용한 활동이 치료적 효과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였고, 방법을 달리한다면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한 가능성은 ‘선후창 방식’이라는 음악 활동을 연구한 결과에 나타난다. 서경희는 “노인들을 위한 음악활동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노래 장르는 민요이며, 민요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형태가 바로 선후창 방식”이라면서, 이러한 음악 활동이 시설 노인의 고독감과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¹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선후창 방식의 치료적 음악활동이 시설 노인들의 고독감 감소와 대인관계의 향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음악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음악의 장르뿐만 아니라 사용방식에도 크게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최근 들어 판소리의 치료적 요소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판소리의 치료적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판소리는 다양한 인간사의 이야기를 창자의 사설을 통해 풀어내면 특정 대목이 감상자의 경험, 사건, 추억과 맞물릴 때 활발한 연상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연상작용은 자신이 가진 기억과 정서가 관련된 유사한 자극이 제시될 경우 정신적, 정서적인 차원에서 재경험하게 된다.¹⁹⁾

이 연구에서는 이어서 비국악인을 상대로 하여 이들이 판소리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요소를 1) 창자의 창법과 목소리 요소, 2) 판소리 사설 요소, 3) 고수의 북소리 요소, 4) 고수의 역할 요소의 네 가지로 구분한 다

18) 서경희, 『선후창 방식의 치료적 음악활동이 시설 노인의 고독감 감소와 대인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제12권 3호, 2010 참조.

19) 이수연, 『비국악인의 판소리 감상과정에서의 경험적 요소』, 『음악치료교육연구』 제9권 제2호, 2012, 21-22면.

음, 판소리의 치료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음악치료 상황에서 내담자의 기저에 있는 ‘울컥함·슬픔·애절함’ 등의 연민의 정서 반응을 표면화하도록 할 때 판소리 창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창법을 모방하는 것은 좋은 치료적 중재가 될 수 있겠다.

(중략)

둘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판소리는 한민족의 대표적인 정서인 ‘한’을 경험하게 해주었고, 이는 자신에게 내재된 민족적인 정서를 공감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를 그룹 치료에 활용하면 그룹원을 하나로 묶어줄 뿐 아니라 판소리를 통해 내재된 감정을 함께 표출시키기 위한 중재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서 판소리의 요소는 감상자를 자극하거나 다양한 감정의 동요 및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관련된 사고와 연상을 유도하였다. 이런 경험 반응은 감상하는 동안 판소리의 요소가 다시 재적용되어 감상자가 경험한 부정적 정서의 해소, 긍정적 정서의 지지, 동요를 통해 자기와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변화까지 유도되었다. 따라서 이는 음악치료 현장에서 판소리 감상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자극하고 경험하며 이에 대해 중재되는 과정까지 포함될 수 있다.

넷째, 판소리는 가사의 사실을 통해 민족의 삶의 내용을 전달 받을 수 있음이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치료 현장에서 판소리 감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확인한 후 이를 다룰 수 있는 내용의 가사를 만들어서 자신의 내면을 전달 및 표현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겠다.²⁰⁾

이 연구를 통해서 판소리의 음악적 치료 중재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 확인되었다. 판소리의 구성 요소에 따라 치료의 대상자에게 기대되는 효과 또한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숙지한다면 판소리를 바로 치료 중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까지 연구되어 있는 내용은 판소리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대목을 들려주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한 프로그램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의 예를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20) 이수연, 앞의 논문, 33면.

4. 판소리를 통한 노인의 자아 통합

판소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며 치료 중재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반적 이론의 탐구로서 판소리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특별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제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소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이다. 치료의 기능은 있으나 판소리 어느 대목이 어떤 치료에 좋을지, 그리고 음악 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구체적인 방식들을 판소리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는 판소리 전문가와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판소리에 관한 지식은 전문가의 영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몇 가지 음악 심리치료의 방법에 판소리 음악을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판소리를 통한 중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계층은 아무래도 노년층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소리에는 전통적 삶의 모습이 담겨 있고, 전통적 삶에 익숙한 세대가 바로 노년 세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에 도달하고, 2026년에는 21%에 도달하여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¹⁾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 문제의 사회문제화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있다. 특히 한국의 노인 세대는 극심한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전통사회의 가치관과 산업사회의 가치관이 혼재해 있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제도적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적 혹은 발달적 특성에 의해 노화를 경험하면서 노인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쇠퇴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급변하는 신체적·심리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자아의 지속성 유지는 더욱 어려운 반면에 그 중요성은 커진다고 한다.²²⁾ 이런 노년기 정체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회상’이 있다.

21) 이 통계 수치는 최성재·장인협, 『고령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12-13면 참조.

22) 이가옥·강희설·이지영, 『노인 집단프로그램 개발』, 나눔의 집, 2004, 12면 참조.

이러한 노년기 정체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Erickson은 회상을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회상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는 기회가 노년기에 자아통합과 절망 간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즉 노인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지나온 생의 경험들을 회상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재통합하기도 하며, 반대로 깊은 우울이나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회상은 개인적인 의미 있는 과거 경험을 언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도모함으로써 재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의 우울감 해소 및 자아통합감 증진, 대처능력의 향상, 인지기능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²³⁾

회상은 직접 자신이 말로 또는 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중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바 판소리를 통해서 과거를 정리할 수도 있다. 이숙은 종말기 환자를 상대로 한 ‘음악자서전’이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자서전이란 “인생을 시대별, 주제별로 나누어서 환자가 선호하는 음악을 선택하고, 노래를 통해서 그 시절의 기억과 추억을 회상하도록 하는 음악심리치료의 한 방법”²⁴⁾이다. 이를 위해 인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판소리에 들어 있는 노래들을 선택할 수 있다. 판소리 속에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탄생 : 「심청가」의 곁씨부인 출산 대목, 「적벽가」 ‘설움타령’ 중 자식 생각
- ② 사랑 : 「춘향가」의 사랑가
- ③ 결혼 : 「심청가」 중의 심청과 황제의 혼인, 「적벽가」 ‘설움타령’ 중의 아내 생각
- ④ 자식 출산 : 「심청가」의 곁씨부인 출산, 「적벽가」 ‘설움타령’ 중의 자식 생각
- ④ 취업 : 「춘향가」 중 과거
- ⑤ 이별의 아픔 : 「춘향가」 중 이별가, 「적벽가」 중 ‘설움타령’
- ⑥ 늙음 : 판소리 단가 중의 「백발가」, 「사철가」, 「편시춘」 등등 대부분의 단가가 해당된다. 따라서 단가는 다양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 곡목을 달리할 수 있다. 예컨대 「사철가」는 사시사철의 변화와 늙음에 관한 내용이며, 「백발가」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23) 이가옥 · 강희철 · 이지영, 앞의 책, 12면.

24) 이숙, 「고통 속에서도 행복한 내 삶의 여정 : 종말기 환자의 음악자서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음악치료학회지』 제8권 2호, 2006, 23면.

- ⑦ 죽음 : 「심청가」 중 광씨부인 유언과 출상,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데, 「적벽가」 중 화공

판소리는 전통적 삶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세계이다. 따라서 판소리를 통해서 인생의 각 국면을 회상하고 정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소리가 19세기 무렵의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지는데, 이 문제만 극복하면 될 것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판소리 자막을 활용할 수 있겠는데, 한글과 영어가 연동되는 자막 프로그램과 한영대역의 판소리 사설집이 이미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져 배포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²⁵⁾

이상과 같은 내용은 참고로 제시한 것일 뿐, 다양한 사례에 따라 다양한 대목을 정하여 판소리를 들으면서 추억을 회상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판소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판소리에 관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판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판소리의 효용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실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판소리 관련 지식을 넓혀야만 한다. 이때 전문가와 기관 혹은 개인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5. 판소리와 지역사회복지

판소리의 치료적 가치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판소리가 음악의 일종이기에 음악으로서의 치료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판소리는 또 민속이기 때문에 민속으로서의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속사회는 우리에게 친근하고 원초적이며, 비공식적인 집단관계가 지배적이며, 관계의 영속성과 친근성, 인격성이 중시되는 사회

25)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의 우측 하단에 붉은 색으로 현재 부르고 있는 모든 바디의 판소리와 단가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 국영문 사설'이란 배너가 있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자막 프로그램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에 연락하여 받을 수 있다.

이다.²⁶⁾ 그러기 때문에 판소리가 보존 유통되는 사회는 정신적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심리적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판소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판소리를 배우고 나서 아프던 몸이 나았다는 사람도 있고, 판소리를 들으면서부터 건강이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다. 또 판소리경연대회나 고수대회에 나온 노인들은 판소리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하곤 한다. 참여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판소리를 이용하여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판소리를 친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판소리는 본래는 대중예술이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급예술이 되어 버렸다. 사설이나 음악을 특별히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전통적인 판소리 청중들이 남아 있었다. 전라도 지역 노인들이 그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노인들도 사라졌다. 이제는 노인들도 특별히 교육을 하지 않으면 판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판소리의 대중화이다. 판소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수연의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판소리를 치료 중재로 사용하는 경우에 판소리를 예술적 감상의 대상으로 삼고 감흥을 느낄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판소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판소리의 대중화는 판소리를 통한 심리적 치료 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효과를 극대화하고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판소리 대중화를 위해서는 판소리 교육을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따라서 판소리를 대중화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소리를 통한 심리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판소리의 대중화란 무엇인가? 필자는 판소리의 세계화에 대해 논하면서 판소리의 대상적 지위에 따라 인지단계, 향수단계, 활용단계로 나눈 바 있다.²⁷⁾ 인지단계는 판소리를 지식의 일부로 인식하는 단계이고, 향유단계는 판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감성을 길러, 판소리를 감상하면서 감동을 받는

26) 최일섭·이현주,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20면 참조. 이 책에서는 민속사회와 도시사회의 특성을 사이트스(Sites)와 호저스(Hodgers)가 민속사회와 도시사회를 비교한 표를 제시하고 있다.

27) 최동현, 『판소리의 세계화에 관하여』, 『판소리 연구』 제26집, 판소리학회, 58면.

단계이다. 활용단계는 판소리의 음악적 요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판소리의 대중화란 다수의 사람들이 판소리를 인지단계를 거쳐 향수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인지단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판소리에 관한 지식부터 고차적인 학문적 수준의 지식을 갖춘 단계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낮은 단계라고 해서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현재 판소리에 관한 지식은 판소리 음악뿐만 판소리의 문학적 지식도 포함하므로, 때에 따라서는 판소리에 관한 고차적인 지식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판소리를 감성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판소리를 인식의 대상 혹은 학문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보다는 예술적 감상의 대상으로 향수하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대중적 교육이 절실하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판소리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제도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여기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떠오르는 것이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판소리를 보급하고 활용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일단은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판소리의 대중화 운동을 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 사업은 1906-1944년의 태동기, 1945-1983년의 형성기, 1983-1990년대 중반의 확대기를 거쳐 현재는 정체성의 재모색기에 들어서 있다. 이 중에서 1983년까지는 사회단체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1983년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²⁸⁾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1995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사회복지지를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²⁸⁾ 사회복지관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 1995년 297개소, 2006년 394개소, 현재는 441개소의 사회복지관²⁹⁾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서울에만도 98개가 있으며, 전라북도에는 17개소가 있으므로, 이 거점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의 업무 중에는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있으므로 판소리 대

28) 이상 내용은 최일섭·이현주, 앞의 책, 325-334면 참조.

29) 이 수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밝힌 것이다.

중화를 위한 운동을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또 복지관 사업 중에서 판소리를 활용한 사업으로 운용 가능한 분야는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청소년복지 사업 등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기관 등을 이용한 방법이다. 예로 전주시평생학습센터를 보기로 한다. 전주시평생학습센터는 2004년 전주시가 증대하는 시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비전을 제시하고, 평생학습도시 출범을 선포하였는데, 이를 실천할 기관으로 개원하게 되었다. 전주시평생학습센터는 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전주시 모든 평생학습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지원하여 전주시민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다 수준 높은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전주시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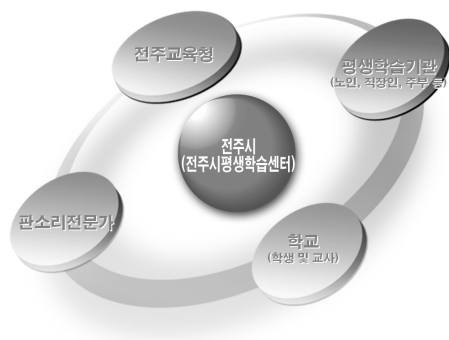


전주시에서는 전주시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평생학습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전주시평생학습센터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전주시 전체에 전파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과 체계를 이용한다면 판소리 대중화를 통한 주민의 행복 증진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향하는 바와 가용문화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판소리의 대중화, 혹은 판소리를 통한 힐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냐의 여부에 있다.

6. 전주시평생학습센터의 “전주시민 한 소리 하기”

전주시평생학습센터에서는 “전주시민 한 소리 하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이를 통해 판소리 대중화를 통한 힐링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전주시민 한 소리하기” 사업은 평생학습기관 파트너십을 통한 판소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2006년 9월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었다. 추진 배경은 세계문화유산 판소리의 본향인 전주의 시민들에게 ‘1시민 1소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과 독창성 확보, 평생학습센터를 비롯하여 각급 평생학습기관, 학교 등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미디어(CD)를 활용한 공동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 확산, 한스타일산업 중심의 전통문화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의 시민들이 전통문화 육성 및 관광자원의 세계화에 참여, “전주시민 한 소리하기”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증대였다. 이 사업의 내용은 1) 판소리 교육, 2) 판소리 교육용 DVD와 CD 제작 배포, 3) 판소리 기행, 4) 전주시민 한 소리하기 결과 발표회 등으로 구성되었다.³⁰⁾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전주시와 전주시평생학습센터 담당자 2명, 전주교육청 담당자 1명, 전주시 평생학습기관 담당자 4명, 학교 담당자 3명, 프로그램 개발, 녹음, 해설 및 DVD 제작 전문가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30) 이하 내용은 전주시평생학습센터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였다.

이 사업의 운영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을 모집하여 심사 후 선정하였다. 첫 해에 선정된 기관은 노인복지회관 한 곳, 청소년문화의 집 두 곳, 문화의 집 두 곳,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였다. 선정된 기관에는 판소리를 교육하기 위해 7명의 강사를 파견하였는데, 강사료는 사업 시행 주체, 곧 전주시평생학습센터가 부담하였다. 선정된 강사는 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명창이 연수를 시켰다. 강사가 직접 가르치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교육용 DVD를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하고, 교육용 DVD 제작 책임자로 판소리 전문가를 선정하여, 필자가 선정되었다. 필자는 판소리 전문가로서 처음 이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였다. 교육용 DVD의 내용은 판소리에 관한 이해, 그리고 단가 배우기로 구성하였다.

각 기관에는 판소리 전문 강사가 파견되어 1주일에 이틀, 하루 한 시간씩 교육을 하였는데 참여자는 10명에서 23명 정도였다. 교육을 마친 다음 2007년 5월 29일 발표회를 가졌다. 장소는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이었는데, 살풀이춤과 판소리 찬조 출연이 있었으며, 지정곡인 단가 『호남가』와 자유곡 한 곡을 불러 경쟁을 펼쳤다. 그 결과 일반부 최우수상은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이, 학생부 최우수상은 인봉초등학교가 수상하였다.



판소리 교육(완산청소년문화의집)



판소리 교육(인봉초등학교)



경연 모습(효문여자중학교)



경연 모습(효자문화의집)



시상식(학생부 최우수상)



시상식(일반부 최우수상)

행사를 마친 후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모든 참여 기관에서 만족도가 높고, 향후 판소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수강생 의견 및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많은 시간 꾸준히 하고 싶다.
- 처음 접한 판소리가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었다.
- DVD 활용도가 낮다. 카세트 테이프 제작 보급 희망
- 좋은 판소리를 배움으로써 자부심이 생겼다.
- 열정적인 강사로 인해 너무 즐겁고 좋았다.
- 도립국악원에 가서라도 더 배우고 싶다.
- 재미있었다. 교육기간이 더 길었으면 한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판소리 교육이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었으며, 자부심이 생길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오래 동안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결과는 물론 이 사업에 참여한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판소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첫 해의 긍정적인 결과에 고무되어 “전주시민 한 소리 하기” 두 번째 해에는 운영팀을 21명으로 늘리고, 시행 기관도 평생학습기관 10개소, 학교 5개교로 확대하였고, 결과 발표회에 앞서 판소리 기행을 실시하였다. 교육용 CD의 내용은 「춘향가」 이해하기와 단가 배우기로 구성하였다. 판소리 기행에서는 남원 지역 판소리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판소리를

직접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 종료 후 학습자와 강사 및 사업 담당자 의견 수렴 조사에서는 판소리 교육 기간 연장, 쉬운 단가 배우기, 판소리 기행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3차년도에는 판소리 교육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판소리 기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교육용 단가 CD를 제작하며, 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년차 사업에서는 사업 참여 기관이 평생학습기관 15개소, 초등학교와 중학교 8개교로 확대되었다. 교육용 CD의 내용은 「심청가」 이해하기와 단가 배우기로 구성되었다. 판소리 기행으로는 고창 지역을 다녀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4년차는 「홍보가」, 5년차는 「수궁가」, 6년차는 「적벽가」를 대상으로 하여 “전주시민 한 소리 하기”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은 2011년 완료되어 더 이상 사업이 지속되지 않고 있다. 2012년과 2013년은 사이버학습관 사업으로 전환하였는데, 이 사업은 홈페이지 사이버학습관에 동영상 탑재하여 판소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2년에는 단가, 2013년에는 「춘향가」를 제작하여 탑재하였다.

그 동안 제작 보급된 DVD와 CD는 다음과 같다.



7. 판소리를 통한 힐링과 복지를 위하여

지금까지 음악 치료 이론과 판소리의 치료적 효과를 연구한 성과를 검토하고, 전주시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기관 파트너십을 통한 판소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행했던 “전주시민 한 소리하기”의 경과와 성과를 소개하였다. 이 사업은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판소리의 심리치료적 효과를 이용하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업 시행과정의 여러 가지 양상이 판소리의 대중화를 통한 힐링과 복지에 접근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서 개선해 나간다면 판소리와 복지, 힐링을 연결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주시민 한 소리하기” 사업은 “평생학습기관 파트너십을 통한 판소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이었다. 이 기관에서 판소리를 통해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 주된 배경은 “세계문화유산 판소리의 본향인 전주의 시민들에게 ‘1시민 1소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과 독창성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힐링과 복지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 아니고, 도시 정체성과 독창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기획되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판소리를 힐링과 복지의 차원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그러나 판소리가 이미 힐링과 복지의 기능이 있음이 증명되고 있는만큼 목표를 바꾸어 시행한다면 새로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판소리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판소리의 대중화도 복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고, 판소리의 위치도 재정립할 수 있다. 판소리 교육 프로그램을 복지의 차원에서 시행해야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처럼 행정 기관의 정책적 목적 아래 시행한다면 단기간에 효과를 내야만 하고, 효과가 있다면 이제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시행하는 한 단기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판소리를 이용해서 힐링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식은 판소리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앞서 박소영과 황은영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음악에서는 장단을 활용한 활동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므로, 북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판소리는 판소리답게 부르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조금씩 배워가지고는 만족할 만한 결과에 이르기가 힘들다. 그러나 고법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물론 북을 잘 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어지간한 수준에 오르는 것은 판소리보다는 훨씬 빠르다. 더구나 북을 치게 되면 판소리 창자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훨씬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고법을 익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민 한 소리하기” 사업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행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도 연령별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큰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을 상대로 하여 청소년 문화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보급해야만 더 나은 판소리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소리나 민속을 통한 힐링이나 복지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일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또는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적지 않은 재정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추어진 곳, 그러니까 판소리에 대한 인식이 좋은 곳에서부터 성과를 내고, 이를 확산시켜나가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지역의 전통이나 욕구, 특성을 무시하고 시작한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만 키우고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은 치료적 기능을 본래적 속성으로 지니고 있다. 그 기능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다른 효과, 예컨대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효과를 거둔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앞에 둔 출발선 상에 있을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참고문헌〉

- A. P. 메리엄, 이기우 옮김, 『민족음악학』, 신아, 1990.
- 김영신 · 고명한 · 박지은, 「국내 음악 치료 사례연구 동향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제13권 제3호, 2011.
- 박소영 · 황은영, 「한국 전통음악을 활용한 국내 연구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제15권 2호, 2013.
- 서경희, 「선후창 방식의 치료적 음악활동이 시설 노인의 고독감 감소와 대인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제12권 3호.
- 이 숙, 「고통 속에서도 행복한 내 삶의 여정 : 종말기 환자의 음악자서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음악치료학회지』 제8권 2호, 2006.
- 이가옥 · 강희설 · 이지영, 『노인 집단프로그램 개발』, 나눔의 집, 2004.
- 이수연, 「비국악인의 판소리 감상과정에서의 경험적 요소」, 『음악치료교육연구』 제9권 제2호, 2012.
- 이인수, 「한국전통음악을 통한 건강증진과 치료 효과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제23권 2호, 2007.
- 이효선,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학지사, 2013.
- 정현주, 『음악치료의 이해와 적용』,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 정현주, 『인간행동과 음악』, 학지사, 2011.
- 최동현, 「판소리의 세계화에 관하여」, 『판소리 연구』 제26집, 판소리학회, 2008.
- 최병철, 『음악치료학』, 학지사, 2013.
- 최성재 · 장인협, 『고령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최일섭 · 이현주,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파폴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국문초록】

이 논문은 판소리의 대중화를 통한 힐링과 복지 실현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준 “전주시민 한 소리 하기”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씌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판소리를 힐링과 복지라는 실제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음악의 기능과 치료에 대하여 살펴보고, 판소리를 포함한 전통음악을 통한 음악 치료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 음악 심리치료의 방법에 판소리를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다. 노인복지의 측면에서는 노년기 정체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판소리를 통한 ‘회상’, ‘음악 자서전’ 만들기를 예로 들었다.

지역사회복지의 측면에서는 판소리가 민속으로서의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판소리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기관 등의 이용을 제안하였다.

전주시평생학습센터의 “전주시민 한 소리 하기”는 지역사회복지와 판소리 대중화, 심리치료 등의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힐링, 복지, 판소리, 음악치료, 회상, 음악 자서전, 지역사회복지, 판소리 대중화, 전주시민 한 소리 하기.

The Healing and Wellbeing through Pansori Popularization

Choe Tong-hy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the realization of Healing and Wellbeing through Pansori popularization and to introduce the proceedings and results of “Jeonju Citizen’s One Pansori Song Singing Movement.”

The function of music and the music therapy were firstly surveyed in this study. And secondly I tried to find out the possibilities of Pansori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therapy.

In addition, I tried to make programs of music therapy through Pansori. For the welfare for the aged, I proposed the ‘recollection’ and ‘making autobiography’ using Pansori music.

For the local social welfare, Pansori can be used as a folk therapy. For this purpose Pansori popularization is compulsory. For the Pansori popularization we can use the Social Welfare Center, Community Center and Lifelong Learning Center.

It was identified that “Jeonju Citizen’s One Pansori Song Singing Movement” had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Pansori popularization and psychotherapy.

Key words : Healing, welfare, Wellbeing, Pansori, music therapy, 'recollection', 'making autobiography', local social welfare, Pansori popularization, "Jeonju Citizen's One Pansori Song Singing Movement"

이 논문은 2014년 12월 1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월 2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